

모두가 만드는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모집

-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국민과 함께, 1월 21일까지 지원서 접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건립되는 국가상징구역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를 공개 모집한다.

* 국가상징구역: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조성되는 구역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

국민자문단은 전문적으로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분과(20명)’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분과(50명)’로 운영된다. 전문가분과는 지난해 12월 도시, IT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시민분과 모집을 통해 국민자문단 운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는 1월7일부터 1월21일(수)까지 2주간 모집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관심있는 만19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QR코드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의 상징 공간’이라는 취지에 맞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 양식과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http://www.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분과는 토론, 전문가 강의,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설계안을 시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 전문가분과와 함께 국민제안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이 단순 자문이나 홍보에 그치지 않고, 국가상징구역 조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연지원, 활동비 지급, 우수 활동자 포상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옥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국가상징구역을 ‘국민 모두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붙임 :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모집 포스터

담당 부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소통협력팀	책임자	과 장	한미진 (044-200-3480)
		담당자	주무관	주재철 (044-200-337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모두가 만드는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모집



대통령세종집무실

모두를 위한 시민공간

국회세종의사당

어떻게 만들까?

- **모집기간** 2026. 1. 7.(수) ~ 1. 21.(수)
- **지원자격**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국가상징구역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 **지원방법** 구글폼 온라인 지원 (<https://forms.gle/2gFJDP4mMPbr9cdi6>)
- **주요활동**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토론 및 제안서 작성
- **활동혜택**
 - 활동비 지급
 - 우수참여자 상장 수여
- **문의처** 국민자문단 운영 담당자 (070-5096-9708)

